

# 널뛰는 주가·금리 ... 금융 소비자 혼란

### 금리 2주째 하락... 대출 갈아타야 하나 걱정 전문가들 “일회일비 하지 말고 손익 계산을”

최근 금리와 주가가 요동치면서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테크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급등세를 나타냈던 시장금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2주째 하락하고 있다.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 금리형보다 낮아지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증시 역시 미국발 약재로 코스피 지수가 1,600선으로 내려앉은 뒤 반등의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 상황이다. 제테크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일회일비 말고 자금의 성격과 본인의 재

테크 성향부터 점검하는 기본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3년 고정 기준)가 변동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은행 창구에는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나온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금리를 갈아타는 것은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롭게 대출받는 방식이어서 중도 상환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

다고 조언했다. 국내 은행들은 대출 시점부터 3년까지 기간에 따라 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최초 대출 때 은행이 담보 설정비를 부담했을 경우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라면 원만금 금리가 역전되지 않는 한 갈아타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이다.  
◇ 은행예금, 펀드는 어떻게 = 우리은행 투채어스 강남센터의 박승안 PB팀장은 “지급과 같은 혼란기일수록 돈의 성격부터 파악한 뒤 투자처를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유자금을 펀드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에 따라 일회일비할 필요없이 버티면 되지만 금융자산을 ‘올인’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비율을 환매한 뒤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 팀장은 펀드 일부를 환매한 자금은 상호저축은행의 특판예금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얼마 전까지 최고 연 7%를 주는 특판예금을 선보인 은행들은 시중금리가 하락하기가 무섭게 금리를 다시 5%대로 낮춘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아직도 연 6% 후반 대까지 금리를 유지 중이다.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면 일반 정기예금처럼 통장 형태로 발행되는 통장식 CD나 금융채에 1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금리가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통장식 CD는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금리를 0.2%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반면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도 해지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연합뉴스

## “2월 증시 저점 1530~1600”

### 증권사 전망 ... 美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지속

2월 증시가 1,500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로 투자심리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월 코스피지수의 저점으로 1,530~1,600선을 제시했다.  
국내 증시에는 이날 초만 해도 코스피지수 1,600선이 국내 증시 주가이익비율(PER) 10~11배 수준으로 과매도 국면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우려가 확산되자 지수 저점을 1,500선 대로 제시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글로벌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차례로 올해 지수 저점을 1,500으로 낮춘데 이어 이날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2월 지수 저점으로 1,500선 초중반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증권사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감안할 때 서브프라임 부실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증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근의 저점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코스피지수가 2월 완만하게 반등해 1,750~1,80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공조체제와 국부펀드의 자금 수혈, 아시아경제의 실물경제 내성 확인 등의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증시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2월 지수 전망치로 1,540~1,750선을 내놓았다.  
현대증권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미국 제조업 위축과 고용시장 악화, 소비침체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신흥시장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어서 2월 증시도 1,53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EU, 한국과 FTA 협상서

### 원산지 'made in EU' 요구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메이드 인 EU(made in EU)'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과 EU는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제6차 협상 이틀째 협의를 열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EU 측은 기술 장벽 분야에서 자신들의 회원국들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별 명칭이 아닌 'made in EU'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EU 회원국별로 제품의 품질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EU 내부에서도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made in EU'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데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민속화 생활용품 선물세트  
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췄다.

광주신세계이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속화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이 선물세트는 신윤복, 김홍도 등 민속화가의 작품을 포장지에 인쇄한 것으로,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췄다. (광주신세계이마트 제공)

## 中 펀드 3개월새 7조8천억 손실

중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 중국펀드들이 최근 3개월새 7조8천억원에 가까운 원금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펀드평가가 중국주식펀드로 분류하고 있는 72개 펀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일 기준(영업점 기준)으로 중국 펀드들은 작년 10월30일 대비 7조7천710억원의 평균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펀드의 설정액은 15조2천221억원에서 18조365억원으로 3개월새 2조8천14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결산이익이 나서 재무자본 금액(2조9천969억원)을 감안하면 설정액은 오히려 1천825억원 감소했다.  
또 28조3천992억원이던 펀드의 순자산(설정액과 운용이익의 합계)은 20조4천457억원으로 7조9천535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설정액 증감 등을 감안할 때 최근 3개월 간 중국 펀드는 약 7조7천710억원 정도의 원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수익률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전체 중국펀드의 수익률은 -26.92%를 기록 중이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중국펀드의 대안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브릭스펀드도 글로벌 증시의 급락장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29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브릭스펀드 가운데 설정액 규모가 3조7천752억원으로 가장 큰 '슈로더브릭스주식형자(E)'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1.42%로 글로벌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 -11.71%와 비슷했다.  
2005년 12월 12일 설정된 이 펀드의 1년 수익률은 한때 5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우수했으나 올 들어 글로벌 증시의 폭락으로 지금은 31.64%로 축소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브릭스펀드가 대안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자금유입이 집중됐으나 브릭스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11~-17%인 점에 비해 대다수 투자자들이 원금마저 까먹은 셈이다. /연합뉴스

## 론스타에 1천억 세금 부과

### 국세청 외환은행 지분 매각 관련 ... 론스타측은 불복

론스타가 지난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작년 6월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8천770만주)의 양도대금 1조1천900억원에 대해 10%인 1천19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론스타는 8천770만주를 주당 1만3천600원에 국내의 144개 투자자들에게 일괄매각(블록세일) 형태로 팔았고, 거래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세금을 내고 론스타에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심판원에 과세 불복 심판 청구를 낸 상태다.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가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벨기에-한국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이 벨기에에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Pass-Through)'이므로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 “법인세 인하보다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 재경부 조세심의관 밝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없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으며 간이과세자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단장은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백 단장은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작년 연말 강남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이러한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진승호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1년 49%에서 2006년 37.5%로 감소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의 과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심의관은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25.9%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 대기업 체감경기 7개월만에 하락

### 전경련, 2월 중 BSI 조사

### 전망치 전달보다 8.2P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의 체감경기가 7개월만에 '부진'으로 돌아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8로 전달의 103.0에 비해 8.2포인트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그만큼 해당월의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전경련의 BSI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116.3을 기록한 뒤 11월 112.4, 12월 103.4, 올해 1월 103.0 등으로 줄곧 하락했으나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99.3)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5)과 비제조업(96.7)의 경기가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

망했으며 제조업 가운데 경공업(93.1), 중화학공업(95.9)이 함께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투자(103.3)는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수출(99.6), 고용(98.9), 자금사정(98.5), 내수(96.5), 채산성(95.4) 등은 부진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 재벌 ‘이익옹기기’ 내부거래 여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목, 조성빈 연구위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5~200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품,서비스 내부거래와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결과,

그러나 설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2월 경기 전망은 103.2로 전월과 비슷한 호조세를 나타냈다. 또 기업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한 경기전망지수는 103.9로 나타나 상·하위 기업간 경기전망이 엇갈리고 있음을 반영했다. /연합뉴스

거래가 이뤄진 두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직·간접 소유 지분) 차이가 1%포인트 더 클수록 현금흐름권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일반기업 대비 초과분) 격차가 0.2%포인트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지분)이 많은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도 비례했다. /연합뉴스

## “신혼여행지 발리가 최고”

### 여행사 사장들 추천 ... 가족여행은 괄

인도네시아 발리가 국내 여행사 사장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꼽혔다.

29일 대한항공의 기내지 '스카이뉴스'가 전국 여행사 대표 135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신혼여행지를 설문한 결과, 발리가 1위를 차지했고 태국 푸켓, 하와이, 필리핀 세부, 몰디브가 그 뒤를 이었다.

여행사 사장들은 발리의 경우 열대 해변, 계곡, 산 등 뛰어난 경관 속에 위치한 아름다운 사원들, 세계 최고 휴양지로서의 노하우,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환경프로그램 등이 최고 신혼여행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가족여행으로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한국과 4시간 거리인 괄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푸켓과 일본도 가까운 거리와 풍부한 관광서비스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중소 39% “대기업 불공정 거래 피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기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38.5%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이하 복수응답)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47.4%)가 가장 많이 꼽혔다.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 납품업체 변경’(10.3%)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대부분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그냥 참았다’(51.9%)고 답했다. ‘대기업에 시정을 요구’(20.5%)하거나 ‘민사소송 등 사법대응’(9.0%)에 나선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것은 ‘동종업종 및 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56.4%), 합리적인 납품단가였다. 이어 ‘일정기간 납품량량 보장’(25.0%), ‘자금·기술·설비 등 지원’(14.1%), ‘투명한 구매시스템 운영’(10.3%)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대학교 학교기업 HIMEC (국비지원)일본 IT취업전제 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2-380-8400
삼진MPS	GS칼텍스 여성승무원인턴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31	02-558-3385
※한일산업	건설업종 특목환경 기술승계.영업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31	062-944-9123
ok웨딩클럽 광주센터	SK OK웨딩클럽 웨딩드레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223-0805
※마트앤다트	경력,회계,서무 경력직/매장영업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945-5003
※시몬디자인	[광주]재능있는 플래쉬 애니메이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1	02-2025-2240
※다이어네트웍스	SK텔레콤 매장내 판매사원(광주/전남/나주시)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01	042-472-4630
※금산트리피아	[광주]LGT RF 지원중계기 시설공사 공무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2/02	02-756-0270
올티스(주)	[광주] 광소자 제조공장(operator)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4	031-737-8033
※유이솔루션	영업관리 대졸직위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4	062-602-7653
※유엔정보시스템	출력센터 운영(고지서발행,프로그램 운영상담) 관리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5	062-603-4322
※범양건설	(경리/토목기사)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05	062-383-3450
그린토건	업무부 경력사원(입찰,계약등)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02/10	062-942-4080
※시몬테크로닉스	전기, 전자엔지니어	초대졸/경력3년	2400~2600	02/10	062-944-3400

(광주직접이력 512-6210 제공)